

제주서 사랑하던 여인과 헤어진 박목월... '이별'의 노래 남기다

김동길 100년의 사람들 인물 에세이

(24) 박목월(1915~1978)

청록파라는 이름으로 세 시인이 있었다. 박목월, 조지훈, 박두진. 이 세 사람은 동인(同人)이었다고 할 수 있고, 내가 보기에 동인이면서도 개성은 뚜렷하게 달랐다. 조지훈은 다분히 불교적이었다. 그런 내용의 시도 여러 편 남기고 갔다. 박두진과 박목월은 기독교적 분위기에서 살았지만 박두진이 투쟁적이었던 데 반해 박목월은 매우 서정적이었다.

북에 김소월이 있다면 남에는 박목월이었다고 정지용 시인이 칭찬할 만큼 그는 젊은 나이에 두각을 나타낸 시인이었다. 내가 가장 사랑했던 박목월의 시는 1946년 출판된 청록집 첫머리에 실은 '남' 이었다. "내사사 애달픈 꿈꾸는 사람/ 내사사 어리석은 꿈꾸는 사람/ 밤마다 홀로/ 눈물로 가는 바위가 있기로/ 어느 날밤에/ 어둡고 아득한 바위에/ 절로 남과 하늘이 비치리요." 이 시는 역경과 좌절에도 여리고 따뜻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젊은이의 모습이 연상되어 읽을 때마다 매우 큰 감동과 위로를 받는다.

6·25사변 중에 나는 부산에 피란 가서 진명여고 영어 교사로 취직했다. 허술한 장

고를 하나 얻어 교사(敎舍)로 꾸미고 학생들을 가르치던 그때였다. 유명한 바리톤 조상현이 같이 그 학교에서 근무하였는데 전쟁 중인 1951년에도 가을은 왔다. 조상현이 학생들에게 박목월이 시를 쓰고 김성태가 곡을 붙인 '이별'이라는 노래를 가르쳤다. 한 교실에서 합창하면 창고 교사 전체에 노래가 울려 퍼졌다. "기러기 울어에는 하늘 구만리/ 바람이 싸늘 불어 가을은 깊었네/ 아아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그런데 이 노래가 3월에 가면 "산촌에 눈이 쌓인 어느 날 밤에/ 촛불을 밝혀두고 홀로 울리라/ 아아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해서, 가을이 되면 언제나 그 노래가 귓전에 들려오는 듯하고 내 젊은 가슴이 울렁거린 것이 사실이었다.

나는 어찌하여 박목월이 그런 시를 써서 가을이 돌아올 때마다 우리를 울리는 것이 잘 모르지만, 그 노래를 자주 듣기도 하고 부르기도 하였다. 근년에 여류 시인 추은희가 나에게 들려준 비화하 하나 있다. 박목월이 제주도에서 사랑하던 어떤 여인에게 작별을 고하고 돌아오던 길에 이 시를 적었다는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나서는 박목월에 대하여 더욱 애절한 느낌을 가지게 됐지만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따져볼 기회가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박목월의 본명이 박영종이라는 사실을 아는 한국인은 몇 되지 않는다. 세상에 알려진 그의 학력은 일제 때 대구에 있는 계

북에 김소월 있다면 남에는 박목월 선명하고 정겨운 언어로 우리를 위로

'송아지 송아지 얼룩송아지 엄마소도 얼룩소 엄마 닮았네' 그가 열여덟에 쓴 동시다



이철원 기자

성학교를 졸업했다는 것밖에 없다. 그리고 누구도 그의 학력에 대해 따지지 않는다. 시인에게 무슨 학력이 필요하겠는가. 그는 중등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했지만 홍익대학, 한양대학교에서 국문학 교수로 일했다. 특히 한양대학교 총장이었던 김연준은 박목월을 좋아해 그에게 명예박사 학위도 수여하고 그를 교수로 채용했을 뿐 아니라 문과대학장 자리도 마련해 줬다. 한국인은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선명하고 정다운 언어로 우리를 위로한 시인이 박목월이었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다.

그는 경남 고성 태생이다. 백일이 됐을 때 부모가 안고 경주로 이사 가 박목월은

경주 사람이 되었다. 그는 신라 천년의 꿈이 서린 그 아름다운 고장에서 산천초목을 바라보며 시상을 키웠을 것이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의 어머니와 할머니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여서 시인 박목월의 꿈과 희망, 환희와 애수, 그리고 향수, 그 모든 것이 기독교적 향기를 품고 있다고 느껴진다. 그는 대구에 있는 계성 학교에 진학하여 처음에는 경주에서 대구까지 기차로 통학했는데 이것이 하도 힘에 겨워 자취하게 되었다고 한다. 자취하면서 돈이 떨어져 담임선생에게 그런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학교 온실에서 묵어도 된다고 하여 당대 최고 시인이 될 박목월은 밤마다 하늘에 빛

나는 별을 온실에서 쳐다보며 시상을 더욱 키웠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일제가 그 말기에 조선어 말살 정책을 강요하던 때에도 박목월은 계속 시를 썼다. 그는 쓴 시를 마루 밑에 감추었다가 밤마다 다시 꺼내어 쓸 정도로 시 쓰기에 정성을 다했다. "송아지 송아지 얼룩 송아지/ 엄마 소도 얼룩소 엄마 닮았네." 박목월은 처음에는 동시를 쓰기 시작하였다. '얼룩송아지'가 박목월 작품이고 어머니를 그리는 마음으로 시를 쓴 그때 나이가 열여덟이었다고 한다.

그는 1940년 정지용의 추천을 받아 '문장'으로 정식 등단했다. 그의 탄생 100주년을 맞이하여 한양대학에서 그의 추모전을 열었는데 그때 저명한 국문학과 교수인 그의 딸이 말했다는 말이 인상적이다. "나는 한양대학교 앞을 지날 때마다 우리 아버지가 한양대에서 받은 월급으로 우리를 먹여 살렸다는 생각에 고마운 마음을 금치 못합니다." 시를 사랑하는 모든 한국인이 백세수를 누리기를 바랐던 시인 박목월은 한참 더 시를 써서 이 백세를 위로해야 할 나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내사사 애달픈 꿈꾸는 사람/ 내사사 어리석은 꿈꾸는 사람." 그의 애달픈 꿈, 어리석은 꿈이 어찌 박목월 혼자만의 꿈이었을까. 나도 그 꿈을 안고 구실이 넓은 오늘 날까지 살아있다. 그의 그 꿈은 모든 한국 젊은이의 꿈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본다.

단국대 석좌교수 연세대 명예교수

엘로 카드



일러스트-안병현

슈뢰더 前 총리님 '오류'도 좋지만 좀 시끄럽네요

게르하르트 슈뢰더(73) 전 독일 총리가 연인 김소연(47)씨의 전 남편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김씨의 전 남편 A씨는 최근 "슈뢰더 때문에 결혼이 파탄에 이르렀고 정신적 고통이 따랐으니 위자료 1억원을 물어내라"고 주장했다. 슈뢰더 전 총리와 통역사 김씨의 관계는 지난해 9월 그와 이혼 소송 중이던 전처가 페이스북에 '과경 요인 중 하나는 김소연씨'라고 쓰면서 알려졌다. A씨는 이 열애설이 불거지고 두 달 지나 김씨와 합의 이혼했다. 슈뢰더 전 총리는 올 초 서울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김씨와 울가를 결혼하고 여생의 반은 한국에서 살겠다"며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해 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A씨는 "슈뢰더와 헤어지는 게 이혼 조건이었는데 김씨가 나를 기망했다"며 "김씨가 '이혼한 지 수년 됐다'고 한 말도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독일에 있는 슈뢰더 전 총리와 김씨는 "결혼 파탄에 대한 책임이 없기 때문에 보상할 필요 없다"고 했다.

별거 중에 연애하는 게 당연한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 사이의 문화 격차라고 해야 하나? 이번엔 결혼하면 다섯 번째인 슈뢰더의 별명은 아우디 혹은 오류기. 주지하다시피 결혼반지 모양의 원이 네 개가 모이면 아우디 로고가 되고, 다섯 개가 모이면 올림픽의 상징이 된다. 박돈규 기자

리더십의 첫째는 실력, 둘째 사심 없어야 하고, 그 다음은 솔선수범

사공일의 리더십과 처세 B1면에서 계속

- 그 시절이 경제 호황이었다고 평가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당시 고속 성장으로 누적된 부작용이 많았어요. 만성적인 인플레이션에 2차 오일 쇼크까지. 국제 수지도 적자였고 새 정부가 경제 안정화를 해야겠다고 해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인기 없는 걸 했어요. 그게 예산·추경수매가 동결이야. 1985년 되니깐 물가 안정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긴축을 풀기 시작했죠. 그러다 1986년에 첫 경상수지 흑자를 낸 거예요. 그때가 세 마리 토끼 다 잡았다고 할 때야. 국운도 좋았던 게 3차 호황이라고 해서 국제 유가, 금리, 달러 다 낮을 때지. 그런데 인도네시아, 라틴아메리카에도 다 왔는데, 우리만 왜 그 운을 잡았느냐. 준비가 됐기 때문이야." - 문민정부로 바뀌고는 검찰 수사를 받으셨는데요.

"5공 비자금은 정치 이슈죠. 내가 재무부 장관을 할 때는 선거자금법 이런 게 없었어. 정부가 기업들로부터 정치 현금을 받고 영수증을 끊어줄 때야. 그게 우리나라 정치 발전 과정에서 문제가 되고 하니깐 재판장에도 가고 그랬죠." - 청문회부터 국정감사까지 살아남으신 처세의 비결이라도 있으신가요?

"특별한 비법이 있는 건 아니고. 난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았는데. 사심 가지고 한 건 전혀 없으니깐. 내가 부실기업 정리하니까 사람들이 틀림없이 정치적인 결탁 있었을 거다 해서 청문회도 하고 국정감사도 하고 검찰 조사도 했는데, 난 국정감사가 좋더라고. 설명할 수 있게 장을 펴주니까. 저는요, 법적인 게 아니고 정책이 잘못됐다고 그 사람들을 처벌하는 건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부실기업 정리할 때 정치권에서는 경남기업을 왜 김우중에

했느냐며 분명히 돈 먹고 봤을 거라며 말이 많았어요. 그때 우리 근로자들이 중동에 갔던 명 나가 있었고, 건설 중인 것도 많았어요. 부도가 나면 주거래 은행인 외환은행 장부를 다 까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외채를 못 빌리니까 국가 부도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게 제삼자 인수예요. 그럼 이걸 누가 (인수) 하겠느냐는 거야. 나하고 김만제 재무부장관하고 힐튼호텔에서 제일 먼저 정주영 회장님 보자 했



사공일 이사장

1988년 2월 과천 재무부장관실을 방문한 제임스 베이커 미국 재무장관과 사공일 당시 재무장관이 악수하고 있다. 사공 이사장은 해외 명사들과 가까운 이유에 대해 "계속 공부하면서 세상 돌아가는 걸 제대로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치로 선 자, 정치로 망해 정치로 백을 써서 성공한 사람 중 끝까지 간 사람 못 봤어

IMF 총재로도 거론 세상에 가장 바쁜 사람들과 친하려면 '나이스하다'론 안돼

대화가 되고 그쪽도 얻을 게 있어야 돼 하루도 빠짐없이 공부

다고. 정 회장이 이명박 당시 건설 사장님과 같이 들어오셨어. 왜 들어온지 아니깐 이미 결심이 섰더라고. 정 회장이 '어, 이 사장 어떻게 생각해요?' 이러니깐, 이 사장이 '아이, 안 됩니다.' 이래요. 그러면 김우중 회장 들어오라고 했지. 김 회장은 '오케이, 하겠습니' 이래요. 그래서 거기로 간 거예요." - 그때 이명박 대통령과 만나신 건가요?

"청와대 수석 할 때 이명박 대통령은 여러 번 만났죠. 정 회장은 그때 정경련 회장을 했기 때문에 청와대에 정책 건의하러 종종 들어오셨어요. 이 대통령과 개인적으로는 식사 한 번 같이한 적 없어요. 그러다가 이명박 당시 후보가 첫 당내 경선할 때 직접 찾아와서 '경제 고문으로 도와달라' 하더라고. '나는 캠프에는 안 간다. 대신 경제 종진들이 모인 조찬 모임을 만들겠다'고 했지. 이후 당선되던 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국경위)' 위원장 제안하더라고." - 그때 G20 정상회의준비위원회 위원장도 하셨습니다.

"리먼 브러더스 파산 이후 제가 대통령을 대신해서 (2008년 10월)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세계경제) 회의에 참석했어요. 그 때까지 회자되던 G10에는 한국이 안 들어가 있었는데, 내가 에비앙에서 연설하면서 꼭 한국이 들어가야 한다는 논리를 폈지. 그랬다가 파리로 갔는데, 거기서 사르코지 대통령의 외교 안보 수석인 장다미드 르비트와 친해졌고 G20 첫 회의는 워싱턴에서 하고, 그다음에 런던에서 회의하는데, 미국이 대통령 인수인계로 바쁘니깐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 밑에서 G20을 총괄한 존 커티프라는 보좌관이 같이 일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미국 프레드 버그스텐한테 하소연을 하니, 버그스텐이 '한국의 사공일하고 같이 일하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친해져서 나중에 한국의 장국이 되는데 큰 도움이 됐지요." -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여소야대 때 청와대 경제수석 하고 재무장관을 했지만, 다 잘 지냈어요. 내가 금리 자율화한다니깐 야당 의원이 나한테 와서 '사공 장관, 앞날이 창창한 사람이 뭐 이렇게 골치 아픈 거 하려고 하노' 하면서 말릴 정도였어요. 사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은 직접 같이 일한 적도 없는데, 그 밑에 사람들이 날 좋게 이야기해서 알게 된 거예요." - 무척협화장 연임을 사양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냥 임기가 다 돼 그만둔 거지. 위에서는 '연임을 해라'고 했는데, '난 안 한다. 난 연구원으로 돌아간다. 후배들에게 이런 선배들도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했지. 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 자리 욕심이 더 안 나시던가요?

"내 좌우명이 '진인사대천명' 이에요. 모든 일을 성실하면 운도 따르는 거고, 운은 따르려고 해봐야 따르지도 않고요. 리더십이라는 게 첫째는 실력이 있어야 해요. 두 번째는 사심이 없어야 해. 그다음은 솔선수범해야 해요. 내가 늘 그랬어요. '정치적으로 억지로 해서 성공한 사람 중 끝까지 간 사람은 한 번도 못 봤다'고. 정치로 선 사람은 반드시 정치로 망하게 돼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항상 그 말씀 하셨어. '순리대로 살아라.'"

정치로 선 자, 정치로 망해

- 유학은 어떻게 결심하셨나요? "어릴 때부터 가고 싶었어. 서울대 상대 졸업한 뒤 등록금 면제해준다'고 해서 UCLA 갔죠. 그랬더니 담당 교수가 외국 학생이 공부 열심히 하니깐 날 시험지 점수 매기는 '리더'를 시켰어요. 이걸 열심히 하니깐 RA(리서치 어시스턴트) 하라고 해. RA 한 학기 하니깐 또 TA(조교) 하더라고. 내가 첫 미국 생활을 유대인 변호사 집에서 했어요. 그때 부자들이 외국 학생들 도와주고 했거든. 그러니 영어를 울

게 배웠지." - 귀국은 어떻게 결심하셨나요?

"뉴욕대 교수하다 영국 초청 교수로 가는 길에 노모 뵈러 잠깐 한국에 들렀는데 당시 김만제 KDI(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이 내가 오는 걸 아시고 점심 같이하자 한 거예요. 갔더니 나보고 빨리 KDI 나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NYU 가서 1년 더 가르치고 귀국했죠." - 청와대행은 빠르셨습니까.

"내가 KDI에서 부원장 하다가 산업연구원 원장으로 가 있는데 아웅산 사태가 일어나. 10월 9일 한글날. 그러니깐 대통령이 그 다음 날 오셔서 나한테 청와대 들어와 수석 하라고 했어요. 내가 '김만제 원장은 KDI를 11년을 해서 세계적인 기관으로 만들었는데, 저도 가능한 산업연구원에 좀 더 오래 있고 싶습니다'고 하니 대통령이 '안 돼, 지금 김재의 수석도 없고, 경제는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해야 해' 하시더라고."

- IGE는 어떻게 세우셨나요?

"노태우 대통령 때 전면 개각으로 장관직 떠나 IMF 초청받아서 미국 가서 책 쓰고 돌아오니 노 정권에서 '산하기관 하나 골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산하기관 필요 없습니. 연구원 할 겁니다' 했지.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하는데 정책·기업 한다는 사람들 머리 안 바꾸면 안 되니깐. 그때 시작한 게 벌써 25주년 됐어. 정부에 있는 후배들이 도와주겠다 했지만 '후배들한테 신세 지는 건 독립성도 없어지고 싶다' 했죠. 그래서 조그맣게 시작한 거야."

- IMF 총재 자리에도 계속 거론됩니다.

"2007~8년에 워싱턴 지식인 중심으로 신흥국 사람이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말이 나왔지. 그때 프레드 버그스텐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장이 공개 연설하면서 날 추천해서. (웃음) '내가 너의 캠페인 매니저 할게' 이러면서 하더라고. 내가 '워싱턴 가서 뛰어들어라'고 그러는 거 원치 않는다' 했지." - 해외 명사들과 친분이 많기로 유명합니다.

"세상 제일 바쁜 사람들이랑 친하려면 사람이 '나이스하다' 정도론 안 돼요. 대화가 되고, 그쪽에서 얻을 게 있어야 해요. 내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공부하는 이유예요. 난 아직 은퇴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계속 이렇게 현역 활동을 하는 거지요."